

12/24/23

설교 제목: 기다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설교 말씀: 누가복음 2 장 22- 38 절

(눅 2: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절관주** 레 12:2, 레 12:3, 레 12:4

(눅 2: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절관주** 출 13:2

(눅 2: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절관주** 레 12:8

(눅 2: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눅 2: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눅 2: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눅 2: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절관주** 막 10:16

(눅 2: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눅 2: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눅 2: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절관주** 사 52:10

(눅 2: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눅 2: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눅 2: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눅 2: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절관주** 요 19:25, 히 4:12

(눅 2: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눅 2:37)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눅 2: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Merry Christmas!

2 천년 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2023 년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기다림,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품은 소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압제로부터의 구원 등등 .....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적 국가적인 부와 권력과 힘..... 등등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던 그 시절, 그들의 기다림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 시절은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어둡고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의 압제에서 풀려날 수 없었기에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윗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들의 생각처럼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접고 자신들의 힘으로 불법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탐닉하기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400 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던 말씀을 일체 끊으셨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당황하고 절망하며 어쩔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이들의 머리 속에 메시아는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양새로.  
그 모양새를 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있었으니 본문에는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기 전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을 소망하며 평생을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 주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과 주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정결 규례로 보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33 일 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눅 2: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눅 2: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눅 2: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 곧 정결 규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결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레 1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레 12: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 (레 12:3)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 (레 12:4) 그 여인은 아직도 삼십삼 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 (레 12:5)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육 일을 지내야 하리라
- (레 12:6)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 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 (레 12:7)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 (레 12:8)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이를 출산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형편이 어려워 양을 바치기 힘들다면 산비둘기 새끼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친 것으로 보아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 뜬금없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 (눅 2: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 (눅 2: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눅 2: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경에서 오로지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을 가게 되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보자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라하고 불품없는 시골뜨기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단 번에 알아봅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 만방으로 확장될 것을 내다 보았습니다.

(눅 2: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눅 2: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눅 2: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눅 2: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눅 2: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에 전파할 빛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의 지배 하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잃은 상태였는데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중심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눅 2: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로 부터 그리고 친족인 세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이같은 예언의 말을 들은 바가 있었던지라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 대해 천사들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눅 1: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눅 1: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눅 1: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눅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세레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눅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눅 1:42)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눅 1:43)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눅 1: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레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한 예언입니다.

(눅 1:67)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눅 1: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눅 1: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눅 1: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눅 1: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눅 1: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눅 1: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눅 1: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눅 1: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눅 1: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눅 1: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눅 1: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눅 1: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런데 시므온은 천사들이나 엘리사벳 사가랴와는 달리 예수께 드리워질 어둠을 예언합니다.

(눅 2: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눅 2: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가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자 곧 메시아의 어머니이지만 동시에 슬픔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허위가 예수를 통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비탄스러운 예언은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 사역이 어떠할지를 암시해 줍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 앞에 등장합니다.

(눅 2: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눅 2:37)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눅 2: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시므온과는 달리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고 선지자라고 신분이 상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비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며 '안나'는 '한나'입니다.  
그녀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메시아만이 그녀와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를 보자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본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 년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절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을 그려놓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자신들을 잘먹고 잘살게 해 줄 세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랬기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사사기 때와 같은 암흑기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악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은 2000 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다리냐며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무어라 해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초림 때와는 달리 만인이 다 알아보게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심판주로 구름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대동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셔서 인간을 심판하시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00 년전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시므온 안나와 같이 여러분 평생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